TV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50 KBS 스포츠 타임	7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당신 참 예쁘다〉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8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아침연속극 〈미쓰 아줌마〉
30 KBS 뉴스	00 생활의 발견 오감도 20 아침 드라마 〈두근두근 달콤〉	9	30 MBC 뉴스 45 기분좋은 날	20 좋은 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 세상	00 여유만만	10		40 SBS 뉴스
00 여성공감 55 바른말 고운말	00 지구촌 뉴스 20 KBS특선	11	00 아름다운 콘서트 스페셜	00 SBS 생활경제 40 SBS 생활뉴스
00 KBS 뉴스12	10 월화 드라마 〈스파이 명월〉(재)	12	00 MBC 뉴스 15 장애인 희망 프로젝트 〈함께 사는 세상〉	00 SBS 12 뉴스 30 인간 대 자연 극한에서 살아남기(재)
00 KBS 걸작선 〈성균관 스캔들〉(재)		1	05 통일전망대 45 지구촌 리포트(재)	20 감성여행 간이역 50 SBS 뉴스
00 KBS 뉴스 10 남도 매거진 〈당신의 프리즘〉(재)	30 테마여행 길을 걷다(재)	2	10 시추에이션 휴먼다큐, 그날 스페셜 55 MBC네트워크특선	00 KBC 열린토론회(재)
10 콘서트 필 2(재) 55 바른말 고운말(재)	00 KBS 뉴스타임 05 엘리먼트 헌터(재) 35 달의 신나는 우주 여행	3	50 MBC뉴스	0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네트워크 특선 아름다운TV	00 TV 유치원 30 부루와 숲속 친구들	4	00 뽀뽀뽀 아이조아 30 싸이킥 히어로	00 안녕 자두야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사랑의 가족 30 희망릴레이	5	00 수목미니시리즈 〈넌 내게 반했어〉(재)	00 SBS 뉴스 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씨네포트(재)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05 리빙쇼 당신의 여섯시	6	00 6시 뉴스매거진 50 생방송 전국시대	20 여름특집 생방송! KBC투데이
00 KBS 뉴스 30 우리말 겨루기	00 생생정보통	7	45 일일시트콤 〈몽땅 내 사랑〉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
25 일일연속극 〈우리집 여자들〉	20 생방송 세계는 지금 50 위기탈출 넘버원	8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며느리〉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생활의 달인
00 KBS 뉴스9	50 KBS 뉴스타임 55 월화드라마 〈스파이 명월〉	9	55 MBC월화특별기획 〈계백〉	55 월화 드라마 〈무사 백동수〉
00 가요무대		10		
10 KBS 뉴스라인 40 과학카페	0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1	15 행복한 문화마을 꿈꾸리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25 KBS 뉴스 35 비바 K리그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TV특강	12	25 MBC 뉴스 24 35 스포츠 특선	25 나이트라인 45 전통문화의 향기

EBS

06:00 신나는 인생 5678
06:30 직업의 세계 일인자
07:00 오스카의 오아시스
07:10 정글북
07:35 꼬마기관차 토마스와 친구들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로보카 폴리
08:35 숲 속 친구 파파룰라
08:50 아기 고릴라 둥둥
08:55 깨미
09:10 방귀대장 뿡뿡이
09:25 부릉! 부릉! 브루미즈
09:40 팅가팅가 이야기
09:55 레온
10:00 최고의 요리비결 〈김경미의 5000원으로 실속밥상 차리기〉
10:30 60분 부모
11:30 글로벌 특강 - 테드
11:55 하늘에서 본 세계
12:00 EBS 정오 뉴스
12:10 TV 평생대학 〈역사이야기〉
13:00 초등 1년 여름방학생활
13:20 초등 3년 여름방학생활
13:40 초등 5년 여름방학생활
14:00 다큐프라임
14:5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중급〉
15:20 뽀롱뽀롱 뽀로로(재)
15:35 깨미(재)
15:50 내친구 티미(재)
16:00 딩동댕 유치원(재)
16:20 특수요원 오소
16:50 방귀대장 뿡뿡이(재)
17:00 부릉! 부릉! 브루미즈(재)
17:20 숲 속 친구 파파룰라(재)
17:40 팅가팅가 이야기(재)
17:50 로보카 폴리(재)
18:00 생방송 톡 톡 보니하니
18:50 와글와글 친구들
19:00 오스카의 오아시스
19:10 정글북
19:35 모래요정 바람돌이
20:00 꾸러기 천사들
20:30 EBS 뉴스
20:45 지식채널 ⓔ
20:50 세계테마기행 〈환성의 섬,필리핀 팔라완〉
21:30 한국기행
21:50 다큐프라임
22:40 직업의 세계 일인자
23:10 다큐 10+ 〈자연〉
00:00 지식채널 ⓔ(재)
00:05 글로벌 특강 테드
00:30 하늘에서 본 세계
00:35 TV 평생대학 〈역사이야기〉

EBS플러스1

04:10 EBS 포스 〈김경한의 적분과 통계〉
05:00 수능특강 〈윤윤구의 사회문화〉
05:50 〃 〈윤희석의 경제〉
06:40 〃 〈윤혜정의 언어영역〉
07:30 EBS 포스 〈최수일의 기하와 벡터〉
08:20 EBS탐스런 〈박정연의 한국지리〉
09:10 〃 〈이우현의 정치〉
11:20 내신6감 〈정승제의 수학(상)〉
12:10 수능특강 〈기상호의 화학 I〉
13:00 수능특강 〈최태성의 한국근현대사〉
14:00 〃 〈강봉균의 한국지리〉
15:00 EBS탐스런 〈고재근의 물리 I〉
16:00 〃 〈박정호의 물리II〉
17:00 기본과 특별한 (재) 〈곽정원의 수학(상)〉
18:00 〃 〈조연의 한국사〉
19:00 수능특강 〈장인수의 물리 II〉
20:00 〃 〈이은희의 화학 II〉
21:00 〃 〈박상준의 수학 II〉
22:00 〃 〈심주석의 수학 I〉
23:00 〃 〈류성완의 국사〉

EBS플러스2

08:00 직업상담사 시험대비 강좌
08:30 유통관시사 시험대비 강좌
09:00 EBS TV 중3 〈국어〉
09:40 〃 〈수학3-2〉
10:20 EBS중3 퍼펙트체크업 〈국어〉
11:00 EBS TV 중1 〈영어〉
11:40 수학의 원리 미테마티카
11:50 EBS TV 중2 〈영어〉
12:30 〃 〈수학2-2〉
13:10 〃 〈과학〉
13:50 중학필수 영단어
14:10 뻔뻔 중학 영숙어
14:30 초등 5학년 영어 Fly High
14:50 EBS 클립뱅크
15:10 수학의 원리 미테마티카(재)
15:20 Go Go Timegirl
15:40 Word Circus
16:00 Wow! Gameland
16:20 초등1년 EBS 여름방학생활
16:40 초등3년 EBS 여름방학생활
17:00 초등5년 EBS 여름방학생활
17:20 초등 수학 - 매스 트레이닝
17:50 EBS TV 중1 〈문학1〉
18:30 〃 〈영어〉
19:10 〃 〈수학1-1〉
19:50 EBS TV 중2 〈영어〉
20:30 〃 〈수학2-2〉
21:10 EBS TV 중3 〈국어〉
21:50 〃 〈수학3-2〉
22:30 EBS중3 퍼펙트체크업 〈국어〉

'슈퍼스타K 3' 올해 성적표는…

김용범 CP "우리만의 감동 보여줄것…오는 12일 첫 선"

방송가에 오디션 붐을 일으킨 엠넷 '슈퍼스타K(슈스케)'의 컴백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2일 첫 선을 보이는 '슈퍼스타K 3'는 지난해와 사뭇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

시즌 1부터 '슈퍼스타K'를 이끌어온 엠넷 김용범 CP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는 "편집을 시작한 지 사흘째인데 잠을 제대로 못잤다"고 했다. 금요일 밤 시간대를 오디션 프라임 타임대로 만든 당사자지만 부담감은 여느 연출자 못지않은 듯 했다.

"시즌 3도 시즌 1처럼 '안티(anti)' 분위기에서 시작해요. 시즌 1을 시작할 당시 오디션은 아무도 안 할 정도로 '망하는 포맷'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아서 물린다는 분위기잖아요. 변하긴 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어렵기는 비슷하죠."

최근 오디션 프로그램의 성적이 시원치 않지만 '슈퍼스타K 3'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크다. 시즌 1,2에서 보여준 재미와 감동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김 CP 역시 "오디션이 지겨웠던 분들에게 '슈퍼스타K'가 이렇게 재미있었다는 점을 환기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슈퍼스타K 3'는 다양성과 개성에 초점을 맞춘다.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재능 있는 '원석'을 선발한다는 게 제작진의 원칙이다.

이를 위해 참가자를 위한 문호를 넓혔다. 2인 이상 그룹 부문을 별도로 만들었고 악기 사용도 확대했다.

지난 3월 10일 시작한 참가 신청에는 총 196만7천여명이 몰렸다. 시즌 2보다 약 60만명 늘어난 수치다. 제작비도 100억원으로 케이블 프로그램 사상 최대 수준이다.

제작진은 ARS와 UCC를 통한 1차 예선을 거쳐 전국 8개 도시를 돌며 2, 3차 예선을 진행했다. 해외 거주자들을 위해 미국과 중국, 일본에서도 오디션을 열었다.

편집해야 할 테이프만 100만개라며 한숨을 내쉬면서도 김 CP는 "올해 예선을 ?어보면 자신이 있다"고 했다.

전보다 싱어송라이터가 많아졌고 그룹 비중이 20~25%를 차지하는 것도 이전과 달라진 점이다.

그는 "음악적 색깔이 좀 더 진해졌다"며 "개인적 아픔을 음악으로 녹여낸 분들이 많아서 고액과외를 받고 속성으로 배운 친구들은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시즌 3에는 이효리, 엄정화에 이어 윤미래가 여성 심사위원으로 합류했다.

김 CP는 "기존 심사위원인 이승철과 윤종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다"며 "본인이 힘든 과정을 거쳐 톱가수가 됐고 아내와 어머니로 경험이 있다보니 이해폭이 넓더라"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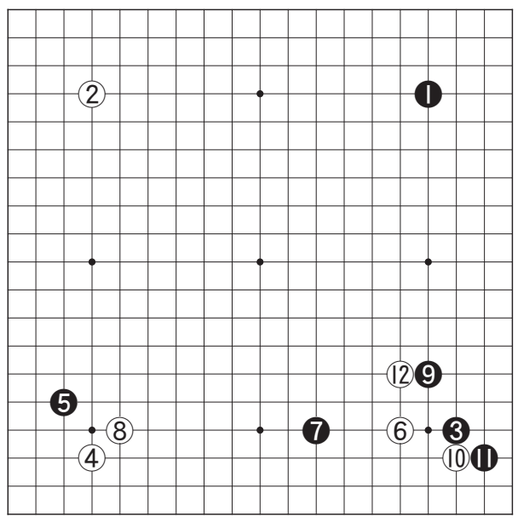
/연합뉴스

제20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터줏대감과 신예

1회전 2국 1보(1~12)

白 이도연 5단 (포스코) 黑 허우석 5단 (광주시청)



이번 대회의 방식은 리그전과 토너먼트의 장점을 결합한 스위스 리그전으로 각 팀에서 3명씩이 출전하여 성적이 좋은 팀 순으로 시상을 하기 때문에 주장전이 큰 의미는 없다. 그러나 아직도 예전의 습관이 남아 있어선지 팀마다 1장에는 최강자를 배치하여 1장전이 주장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

허우석 5단은 이 대회가 시작된 20년 동안 빠지지 않고 출전한 직장바둑계의 터줏대감이자 그동안 광주시청이 수많은 입상기록을 갖는데 견인차가 된 강타자로, 이번에도 역시 제일장으로 출전하여 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맞서게 된 이도연 5단은 포스코 광양제철의 신입사원으로 이번이 첫 출장이다.

그동안 포스코의 돌풍에 견인차 역할을 하던 박광주 5단이 본사로 영전해 가고 대타로 출전한 셈인데 어린 시절 한때 연구생 수업을 한 적이 있다고 하니 상당한 강자임이 분명하다.

백전노장인 허우석 5단을 만나 이도연 5단이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것인지가 자못 궁금한 1회전의 빅 이벤트인 관심국이다. 백 12까지 우하귀에서 탐색전이 벌어지고 있다.

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일(음 7월 2일 戊子)

子 36년생 걱정을 앞당겨서 할 필요는 없다. 48년생 모임의 숨은 공신을 찾게 된다. 60년생 은행 전산 장애로 답답하기만 하다. 72년생 친구가 약속을 잘 지켜 주리라는 믿음이 있다. 84년생 이 회사에 정착할 수 있을지 의아해 한다. 행운의 숫자 : 82, 13

丑 37년생 가족 파티를 열겠다. 49년생 상대의 발언 중에서 중요한 요소를 찾을 수 있다. 61년생 온정주의가 작용해서는 안 된다. 73년생 거액의 상여금을 기대하는 배우자가 정말 속없구나! 85년생 이성 상대와 함께 커플링을 산다. 행운의 숫자 : 68, 37

寅 38년생 계곡물에 발을 담그니 신선이 따로 없구나! 50년생 잘못하다가는 명예에 누가 될 수 있다. 62년생 발전을 위해서는 쓴소리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74년생 작업을 독려하는 상사가 부담스럽다. 행운의 숫자 : 23, 65

卯 39년생 모임에서 기념 촬영이 있으니 복장을 갖추고 나가자. 51년생 벼락 돈이 보인다. 63년생 상사는 그 기안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한다. 75년생 휴가의 자유를 만끽한다. 행운의 숫자 : 51, 68

辰 40년생 길을 안내하는 손자뻘 아이가 귀엽기도 하구나! 52년생 너무 권위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 64년생 명분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라. 76년생 휘발유 값이 급등하여 자가용 승용차를 처분하고 싶다. 행운의 숫자 : 56, 50

巳 41년생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가 고맙기만 하다. 53년생 수하의 헌신적 근무에 감동한다. 65년생 자기 색깔을 분명히 나타낼 필요가 있다. 77년생 의견을 개진할 자료를 종합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5, 92

午 42년생 불법으로 질주하는 택시 속에서 불쾌감을 느낀다. 54년생 기존의 사업 계획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66년생 실직한 벗의 재기에 힘을 보탠다. 78년생 획기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0, 22

未 43년생 헌 책방에서 찾고자했던 책을 구입하면서 다중의 기쁨을 맛본다. 55년생 경영진의 긴급 호출을 받는다. 67년생 노력한 만큼의 반대 급부가 충분히 주어진다. 79년생 표어 현상 공모에 응모한다. 행운의 숫자 : 36, 71

申 44년생 핸드폰이란 귀찮으면서도 편리한 두 얼굴을 가지고 있구나! 56년생 뜻밖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68년생 팀원 상호간의 연대가 크게 효과를 본다. 80년생 애인의 참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행운의 숫자 : 66, 01

酉 45년생 수풀에 굉은 개가 내몰고 오장에 말은 술이 내모느니라. 57년생 상표의 인지도가 한 몫 할 것이다. 69년생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만 있다면 승산이 보인다. 81년생 전화 목소리는 항상 부드럽게 하자. 행운의 숫자 : 67, 83

戌 46년생 혈연의 응집력을 확인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58년생 그의 맹활약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구나! 70년생 솜씨 있는 인테리어 장식가를 수소문한다. 82년생 윗 분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겠다. 행운의 숫자 : 12, 58

亥 47년생 후원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59년생 후배와의 대화 속에서 세대 차이를 느낀다. 71년생 자녀의 성적 관련 상담 후 재출발을 유도한다. 83년생 신입 사원이 소속팀의 핵심적 역할을 잘 해내고 있구나! 행운의 숫자 : 91, 52

www.cafe.daum.net/sajoo114 ☎010-9790-8237

우리말 나들이

주접

여러 가지 이유로 생물체가 쇠해지는 상태

'주접'은 '주럽'과는 뜻이 다르다. 식물이나 작물 따위의 생물체가 잔병이 많아서 잘 자라지 못하거나 기를 펴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것을 '주접들다'라고 한다. 작은말은 '조잡'이다.

그런데 '주접'은 오늘날 대부분 사람의 행위와 관련되어 쓰인다. 예컨대, 음식에 대하여 추잡하게 욕심을 부리는 태도가 있는 사람을 '주접스럽다'고 한다. 또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을 일러 '주접떨다'라고 한다. 뜻이 별로 좋지 않은 말이다. 사람을 극도로 비하할 때 쓰는 말이다.

〈전남언어문화교육 연구회〉

굿모닝 잉글리쉬

I've heard a lot about you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A : Hey, Kevin. Can I introduce you to my colleague? Kevin, this is Maggie.
B : Hi, Maggie. I've heard a lot about you!
C : Oh, nothing bad I hope!
B : Hmm, no, only good stuff I think! Are you having a good time?
C : Oh, it's been good fun so far! There are lots of nice people here.

A : 안녕, 캐빈. 내 동료를 소개하지. 캐빈, 이 분은 매기야.
B : 안녕하세요, 매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C : 오, 나쁜 말은 아니었겠죠!
B : 음. 아니에요. 전부 좋은 얘기였던 같아요. 잘 지내시나요?
C : 지금까진 정말 좋았어요. 여긴 좋은 분들이 많아요.

* It's been good fun.
= I'm having a lot of fun.
(주의) It's been very fun. (×)

〈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

니하오 쭝구워

吃豆腐 chī dòufu

여자를 희롱하는 것과 두부의 관계

'두부(豆腐)를 먹다(吃)'라는 말이 중국어 관용어로 '여자를(부녀자를) 희롱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1930년대부터 유행된 말이라고 하는데, 당시 잘 나가던 한 두부가게는 남편이 한밤중에 두부를 만들어 놓으면 낮엔 아내가 두부를 팔았다고 합니다. 두부 가게 여자는 몸에 좋은 두부를 많이 먹어서인지 피부가 아주 고왔고 미모까지 한몫해서 두부가게엔 남자 손님들이 북적거렸지요. 두부를 팔기위해 치장하고 애교로 단골 손님을 만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들은 두부를 먹는 목적보다는 이 여자와 잠시라도 어울리기 위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잦은 외출을 질투하는 여자들이 '또 두부 먹으러 가느냐'고 말하면 '여인네 희롱하러 가느냐'는 질문과 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오하요우 니혼고

上手(じょうず)じゃないです。

능숙하지 않습니다

A : 安野先生(やすのせんせい)はピアノを弾(ひ)くことができますか。
B : はい、少(すこ)し出来(でき)ますが、上手(じょうず)じゃないです。
A : 羨(うらや)ましいですね。私(わたし)は何(なに)もできません。
他(ほか)にも出来(でき)る楽器(がっき)がありますか。
B : ピアノだけ少(すこ)し弾(ひ)けますが、他(ほか)は全然駄目(ぜんぜんだめ)です。

A : 야스노 선생님은 피아노를 칠 수가 있습니까.
B : 예, 조금 할 수 있습니다만, 능숙하지 않습니다.
A : 부럽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악기가 있습니까.
B : 피아노만 조금 칠 수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전혀 못합니다.

〈아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http://www.kjasuka.co.kr ☎ 232-1503